

---

# U.G.I.S(위장조영촬영술)을 통한 Stomach cancer 환자의 증상별 분류에 대한 고찰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임상수, 조승영, 성낙순, 안광삼, 이민희, 조남수

---

**목 적 :**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위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화기계통에서의 암 발생 빈도는 남녀 모두 전체 암에 의한 사망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는 위암의 증상이 모호하고 비슷한 질병도 많기 때문에 예사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 조기 위암의 진단은 수술사망률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예후가 극히 좋아 5년 생존율이 95%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위장검사법을 (DRF system, 디지털 투시영상 진단장치) 이용하여 진단적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흡연과 식생활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조기위암과 진행성위암을 분류, 검토함으로써 향후 위장질환을 연구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대상 및 방법 :**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위장검사를 받은 외래, 입원 환자 822명 중 위장내시경상의 stomach cancer를 진단 확정 받은 검사환자 31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사기기 및 물품으로는 DR system과 Barium E-Z-HD(98% W/W), 발포제를 사용하였다. 환자는 검사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NPO(금식)를 시행하여 공복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 총 822명 환자 중 성별 비율로서는 남자 61%, 여자 39%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흡연과 식생활 습관에 더욱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2명의 위암 환자 중 증상별 비율로는 조기 위암 환자 46.5% 진행성 위암환자 53.5%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1%, 30대 3%, 40대 11%, 50대 22.3%, 60대 27%, 70대 이상은 35.7%로 나타났다. 조기 위암을 Type별로 분류했을 때 type-II가 8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type-III가 17%, type-I이 3%로 나타났다. 진행위암 환자를 분류했을 때는 type-III가 8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type-I이 10.6%, type-IV가 7.1%, type-II가 2.3%로 나타났다. 기타 전체 환자 중 위염 진단환자가 12.5%로 나타났고, 용종 환자는 2.6%로 나타났다. 특히 위염 진단환자와 조기 위암환자의 증상이 위주변이 약간 아프고, 공복시 또는 식후에 통증을 느끼고 구토증을 느낀다고 나타났으며, 진행성 위암 진단환자는 토혈과 하혈이 있게 되고 빈혈증상이 나타나며 체중감소를 동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참고) 조기위암의 Type별 분류 명칭

type-I : 용기형

type-II : 표면형(Ⅱa-표면용기형, Ⅱb-표면평탄형, Ⅱc-표면함요형)

type-Ⅲ : 함요형

진행성 위암의 Type별 분류 명칭

Borrmann I형 : 용기형   Ⅱ형 : 용기침윤형   Ⅲ형 : 궤양침윤형   Ⅳ형 : 미만침윤형

**결 론** :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암의 발견시 조기 위암은 적고 진행성 위암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위암의 증상별 분류를 볼 때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의 비율이 46.5%, 53.5%로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장비의 정밀한 진단과 의료인식의 향상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위암의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고 위험요인이 되는 것(흡연, 음주, 자극성 음식)을 줄이고 야채, 과일과 같은 식이섬유 등을 항상 충분히 섭취하는 식생활을 영위하면 위암의 예방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